

한미FTA 워크숍

■ 노무현 대통령 모두 발언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숨 돌릴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FTA가 비준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많겠지만, 손해를 볼 국민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 볼 국민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단지 손해 보지 않을 수준이 아니라, 어려워지는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의 결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준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찬반 주장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쪽 손들어야 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도 모든 것이 예측이어서, 상황을 가정한 예측

이어서 100% 정확할 수 없겠지만, 협정 체결 이전과는 달리, 조건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또는 미국에 대한 민족적 정서라든지 또는 이념적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전략적 목적을 위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들과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도 근거 없는 사실, 또는 사실이 과장되지 않게 하고, 사실과 논리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 모인 것입니다.

고유의 소관 업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새로운 도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들 다 이것이 내 일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책을 세울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한분 한분이 토론에서 정부의 논리를 방어하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 있다는 가정 하에서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는 그런 준비를 함께 갖추어 봅시다.

그 이전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진정으로 정부 말이 맞는가, 정부에 직간접 관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맞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눈치 보지 말고 기탄없이 말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해 확실하게 방어적 논리를 내놓지 못한다면, 1차적으로 정부는 더 공부해야 할 것이고, 그래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비준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뿐만 아니라, 이후 계속해서 그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내용이 직간접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공개된다고 아끼지 말고 가차 없이 질문할 것은 질문하고, 따질 것은 따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에 국민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좋은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